

PE포대 일본수출 무려 69% 감소

2003년 가격경쟁력 저하 2747톤 불과 … 중국은 16만톤 넘어 평정

2003년 일본의 PE포대 수입량이 11.4% 증가한 가운데 한국산 수입은 무려 6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 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3년 일본의 PE(Polvethylene) 포대 수입량은 총 38만3913톤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수입 증가량은 4만톤을 약간 미달했다.

아시아, 특히 일본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산 수입이 증가했는데, 엔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PE포대 수입실적(2003)

(단위: M/T, %)

수입량	증감률
2,474	▽69.1
165,072	22.3
16,398	▽13.0
65,059	13.3
31,529	▽1.7
19,413	14.0
60,803	11.7
22,072	8.8
383,093	11.4
	2,474 165,072 16,398 65,059 31,529 19,413 60,803 22,072

자료) 일본 재무성

중국산 수입량은 16만5072톤으로 22.3% 급증해 총수입량의 40% 이상을 점유했고, 타이산이 6만5059톤으로 13.3%, 인도네시아산은 6만803톤으로 11.7% 증가했으며, 필리핀산은 1만9413톤으로 2만톤에 미달했으나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반면, 한국산은 2747톤에 그쳐 무려 69.1% 급감했고, 타이완산은 1만6398톤으로 13.0%, 말레이지아산도 3만 1529톤으로 1.7% 줄었다.

한국산의 수입급감은 가격경쟁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PE포대 시장은 원료 PE 가격급등에 엔고현상으로 아시아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의 가공기 업들이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남아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Chemical Tournal 2004/03/18>